

재능기부하면서 행복을 느껴요

학창시절부터 꿈이 가수였다. 가수 문주란을 닮았다고 ‘리틀 문주란’이란 별명을 얻으며 꿈을 꾸었다. 하지만, 7남매 맏이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가수의 꿈을 접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 일하다 뒤늦게 결혼했다. 결혼 후 어렵게 살았기에 독거 노인, 목욕, 반찬, 김장 등으로 9년동안 봉사하다 위암판정을 받고 전의가 돼 인파선, 담낭까지 절개 후 치료를 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다시 봉사단에 나아가 봉사를 시작했다.



현재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정(61)씨가 살아온 길은 고된 길이었다. 암 치료를 받은지 2년 5개월 후 뇌졸중 78%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 등 병을 이겨내며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는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위문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그는 투병중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가 닮았다고 하는 문주란의 히트곡인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로 가요제에서 100여명의 경쟁자 속에서 대상을 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가요제에 참여해 좋은 성적으로 상을 탄 경력도 있다. 그가 재능기부에 나선지 5년, 이수정씨는 노래와 봉사활동을 위해 스피치과정에서 학습하

며 뇌졸중 등 투병중에도 가수로서의 꿈 이루기 위해 문주란 히트곡으로 가요제에서 대상 타기도

5년전부터 재능기부 시작 노래·봉사활동 위해 스피치과정에서 학습 자신의 역량 키워

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현재, 타이틀곡 ‘특별한 사람’으로 방송과 행사장, 봉사장소를 누빈다.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소장 김양옥)와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등에서 이사로 가입,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눔과 재능기부로 많은 수상을 했다. 또한, 이수정 후원회로 김주섭 회장, 김양옥 자문위원을 모시고 정기 모임도 하고 있다. 이수정씨는 현재 효가족사랑, 효사랑 요양병원, 미래요양병원, 소양마을사랑, 완주요양병원, 푸른요양원, 우리들요양원, 너심흙, 참사랑나눔원, 늘푸른요양원,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등에서 왕성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주요 표창 ◀◀

- 전주매일신문사 대표 표창
- 우석대학교 총장 상장
- 전라북도교육감 표창
- 국회의원, 도의원 표창
- 전라북도지사 표창
- 전주시장 표창(2회)
- 각 사회단체 표창 다수

▶▶ 주요가요제 입상 내역 ◀◀

- 2014 노사모 전주가요제 대상
- 2015 노래를 사랑하는 가요제 대상
- 2015 강경절갈축제 대상
- 2016 양촌곶감가요제 대상
- 2016 사선대가요제 은상
- 2016 대전가요제 금상
- 2017 전국장애인가요제 특별대상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